

hdhstudy.com/1970/29-292-to-29-311-%ec%b5%9c%ed%9b%84%ec%9d%98-%ed%95%9c%eb%95%8c%ec%99%80-%eb%82?

1/10

비통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한 때는 언제인가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인간들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친지가 있기에 슬픈 환경에 부딪치게 될 때 위로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보다 더 분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게 될 때는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비통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자신이요, 끝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원한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내정적인 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품고 지금까지 복귀섭리를 해 나 오신 것입니다.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6천년 전의 슬픔도 역사시대권내에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제물로 드렸다는 체험으로 기쁨을 느꼈다면, 그것이 시간권의 내용이든지 생활권의 내용이든지간에 일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폭과 넓이가 커져 추앙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무한한 근원과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하여 그런 내용을 갖고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하신 슬픔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슬픈 마음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지 못하시고 그 마음을 품은 채로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타락한 환경 가운데서 헤매며,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도리어 당신 자신을 잊으시고 부모의 입장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입장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중심삼고 잊을 수 없는 최후의 한때, 타락의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최후의 한때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한때와 환경을 갖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심정적인 곡절을 가지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락된 것을 해원성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소망하던 이상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타락한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본연의 심정으로 직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에든지 그냥 그대로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된 소망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볼 때, 타락한 기준 이상의 자리를 넘여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최후의 한때를 마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아담 해와가 쫓겨났던 비운의 근원을 뽑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한때가 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가정과 노아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역사는 지금까지 6천년 동안 흘러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귀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곡절이 있어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중심삼고 아담이 실수한 것을 복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는가? 암담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만도 슬픈 일인데 희망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녀의 기준을 찾기 위해 소망의 터를 닦고 키워 복귀의 한때를 바라본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되니 2차의 복귀의 소망마저 실패하게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내심에 거둬 못자국을 남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 조상이 하나님 앞에 슬픔의 기원자인 것만도 보통한 사실인데, 아벨이 처참한 형상으로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하나님께 못자국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중된 원한을 품고 나오셨습니다.

노아를 중심삼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수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따라올 수 없는 외로운 자리에 내몰린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든 특정한 사람이든 타락한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까지 몰린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몰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는 둘이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혼자만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벨도 단 혼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했고, 노아도 단 혼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아담 해와 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섭리는 남자를 중심삼고 하는 것입니다.

복귀역사를 중심삼고 볼 때, 남자가 이것을 찾아야 할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복귀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노아가 찾아가는 자리도 역시 하나님과 노아 자신 둘만이 대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는 목표와 일체될 수 있는 인연을 세워 하나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이 현현된 실체와 같은 입장에서 주체인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절대적인 신앙 기준을 세워 주기를 바라고 노아를 몰아냈던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루도 아니요 10년도 아닌 120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시어 참고 극복하라고 언제나 말씀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한번 믿었으면 그 절개를 영원히 지킬 줄 알아야 했고, 한번 믿었으면 아무리 환경이 요동을 하더라도 그 환경을 넘어 갈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노아는 120년 기간을 지난 후에 홍수심판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소원성취가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중심삼고 볼 때, 노아 개인만으로는 복귀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인 아벨이 필요했듯이,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를 복귀할 인연을 중심삼고 아버지와 일치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타락한 부자의 인연을 복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구원섭리의 출발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자식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중심삼은 뜻에 있어서 부자가 일치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모든 수난의 역경을 거치게 하여 40일 홍수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심판 이후의 이 땅 위에는 아버지와 그의 가족만 있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인 노아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함이 불신하는 한때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제 2차적인 복귀도상에 있어서 또다시 하나님께 슬픔을 가중시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9-297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아브라함을 중심삼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라의 아들을 세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적인 생활환경에서 자라 많은 체험을 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역사과정에 있었던 내정적 슬픔을 전부다 품고 오셔서 그 품은 한을 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수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빼내 가지고 고향 산천을 버리고 갈대가 우르를 떠나라고 명하시어 애급노정을 견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은 아담이 타락한 후 2천년 기간의 수난의 역경을 거쳐오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귀할 수 있는 소망의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 데에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제 3차적인 복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뜻을 박는 원한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민족을 끌고 나오면서 수습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민족을 수습하기 위해 모세를 세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면서 반석을 2타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님이 올 때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 터를 닦게 하였고, 요셉 가정을 중심삼고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박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의 대표자로 오시는 메시아 앞에 이방의 대표자로서 굴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은 3대 천사장이 하나님과 아담에게 굴복하지 못한 것을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 이런 원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국가 기준이 세계적 판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물로서의 예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실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동방박사가 예수님과 뜻이 일치되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중심삼고 해롯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섰더라면 일차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하여 국경을 넘게 한 동방박사들이 의인이 태어난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세상적으로 바라던 소원을 중심삼고 한때의 중간적인 사명자로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다한 줄로 생각했던 것이 역사적인 불행인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예수님과 일치되었더라면 국가를 넘어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준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을 갖추어 나갔더라면 예수님은 복귀의 한때를 맞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난의 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났고 요셉 가정은 그를 불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레 요한에게 희망을 걸었으나 그도 책임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교회적인 수난의 길이 전개되었습니다. 교회적인 수난의 길이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수난의 길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 가정에서 가정적인 기준이 일치되었더라면 세레 요한은 자동적으로 복귀 되었을 것입니다. 세레 요한은 종족기준을 대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장이기 때문에 요셉 가정이 일치되어 나왔더라면 세레 요한은 자연히 환경을 넘어 수습되었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세레 요한은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29-299

예수님의 죽음으로 승리의 한때를 맞지 못한 하나님의 슬픔

가정적 기준을 잃어버린 예수님에게는 교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나서는 걸음이 공생애의 첫번째 걸음이었고, 40일 금식 직후의 예수님의 입장은 세레 요한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가정적인 기준을 수습하기 위해 이런 제 1차적인 노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적인 기반이 무너지더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기반에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레 요한적 사명을 대신하여 그 기대를 갖추고 나갔다면, 예수님이 국가적인 기준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너지므로 말미암아 가정적 기준을 상실하고 교회적 기준을 상실해 버린 예수님은 국가적 기준을 갖추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기준을 중심삼고 4천년 역사를 섭리해 나온 하나님의 뜻이 진전될 수 없는 입장이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4천년 만에 승리의 한때를 맞이하여 가슴에 박혀 있던 원한의 못자국을 뽑아내기 위해 소망의 아들을 세우셨으나 인간들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 나라를 준비하셨고, 유대교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요셉 가정을 준비하셨고, 이방 나라를 중심삼고 세 동방박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같이 모든 환경이 준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대표자들이 책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통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던 그 이상의 슬픔을 느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담을 복귀하기 위한 복귀의 터전을 모색하기 위해 수난의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제2의 복귀를 위한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하니, 그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비참하셨던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 입장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한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입장을 타감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국가를 넘지 못하여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 세계로 가야 하는 기독교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순교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아닙니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당이란 개

인주의적인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어 왔던 신앙자들이나, 혹은 시대시대마다 기독교를 지도하며 복귀섭리를 책임져 나온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소원이었지 믿고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2천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을 중심삼고 구원의 목적을 세워 나오는 그 배후에는 누가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판도를 연결시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오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하여 자신들이 개인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복귀섭리를 담당할 특별한 나라면 나라일수록 기독교가 발전해 나오는 데있어서 수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귀섭리도상에 있어서 귀중한 임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국가로부터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땅 위에 맺혀진 실제적인 탕감의 기준을 세계적으로 벌여 놓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뜻을 전통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난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후를 남겨야만 섭리의 중심 민족이 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민족이 국가로 가는 입장에서 어떤 종파적인 입장에 몰려 희생당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수난을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29-301

하나님이 복귀섭리를 하시는 방법

지금까지 복귀섭리는 개인적인 환경도 그런 환경, 가정적인 환경도 그런 환경, 종족도 그런 환경, 민족도 그런 환경, 국가도 그런 환경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내용을 갖추어 가지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운 그 가정이 사라져 갔고, 종족이 사라져 갔고, 국가가 사라져 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들이 사라져 갔을 때는 재차 택해 세워서 지금까지 그 국가가 치른 탕감을 일시에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탕감하는 이유를 깨달은 민족이나 국가가 있을 때는 그 민족이나 국가를 세워서 복귀섭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최후의 비장한 한때를 맞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벨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슬픈 숨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맥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면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역사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실에 현현된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영계는 시간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몇천 년 전도 오늘과 같은 것입니다. 오랜 역사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삼은 내용이라든가, 모세를 중심삼은 내용이라든가, 예수님을 중심삼은 내용 등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환경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느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한계권내에 있는 우리에게 몇 천년 전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루와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한 순간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복귀라는 한 맺힌 명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복귀라는 원한의 명사가 필요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제1차적 복귀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한의 못자국을 남겼는데, 함도 그랬고, 제물 실수한 아브라함도 그랬고, 반석 2타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또한 동방박사와 요셉 가정도 그랬고, 세레 요한과 유대나라의 제사장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종교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떠한 가정, 어떠한 개인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소망을 다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입장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신을 해소해 버리고 스스로 해결짓고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단계에 희망의 조건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로부터 희망의 조건을 세워 복귀섭리를 추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끝날이 되면 될수록 뜻을 대하는 특별한 사명을 짊어진 사람이

나온다 할진대, 하나님께서 그를 믿기까지에는 지금까지 6천년 동안 맺힌 사연, 즉 6천년 동안 불신한 환경의 내용을 전부다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날이 되면 될수록 외적으로 종교적인 기반이 넓어져 하나님을 모시는 기반이 넓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뜻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개인이 믿던 신앙의 기준을 중심삼고 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세우기 위한 시련을 거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아버지의 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끝날에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판도를 갖춘 환경일 텐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배후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자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뜻을 대해 충성하는 모습을 불안고 당신의 사연을 통고하고 싶지만 이러한 사연을 통고했다가는 더 큰 슬픔을 남기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복귀의 심정을 넓혀 나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정적으로 지금까지 저끄러졌던 6천년의 원한을 풀고 다시금 심정적인 기반에서 아벨을 지도할 수 있는 이상의 기준을 넘어설 때까지 택한 사람을 시련도상에 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너는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조건, 즉 '너는 이제 떨어지더라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남겨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날이되면 될수록 그러한 입장에서 특별한 자녀들을 대해 나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29-303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가시는 길

오늘날 통일교회에 있어서 선생님을 중심삼고 볼 때 선생님도 일신의 기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짊어졌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를 보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에게도 보내져야 할 게 아닙니까? 요셉과 같은 가정에 보내져야 되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역시 왔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역사적인 그 후손들을 통한 환경에서 복귀섭리를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환경에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운명에 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협조를 받지 않고 이런 길을 고독단신으로 걸어왔습니다. 일대일의 입장을 갖추지 않고는 복귀의 중심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지상에 상대적 여건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결정되지 않고는 상대적 환경이라든가 혹은 국가라든가 세계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복귀원리의 내용을 중심삼고 볼 때, 이것은 샘터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와 물줄기가 합하여져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대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해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샘줄기를 찾아가는 것이 복귀의 길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누구보다도 포부와 희망이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입장에 서고 누구보다도 비참한 자리에 서서 최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크다면 최고로 큰 자리요, 작다면 지극히 작은 자리까지 거치지 않고는 복귀의 사연을 통틀어 가지고 뒤집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원리의 배후에는 이런 곡절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갖게 된 슬픔을 풀 수 있는 한 때, 복귀의 한을 풀 수 있는 한때를 맞지 못하셨습니다. 아벨을 찾아왔지만 그 소망을 저버리게 하던 한때, 3차에 있어서 노아를 중심삼고 복귀하려던 그 한때, 아브라함을 중심삼고 또다시 수습하려던 그 한때, 예수님을 중심삼고 전체를 수습하기 위해 섭리하셨지만 하나님은 복귀의 그 한때를 맞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선열들이 죽음길을 가리지 않고 수난길에서 피의 대가를 치르고 영계에 가서까지 해원성사의 한날을 향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를 바라볼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대할 수 없는 비통한 입장에서 2천년의 역사를 지내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복귀의 종교는 재림사상을 중심삼고 어느 특정한 나라나 민족을 세울 때까지 그 배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모르는 수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9-305

재림주의 자격과 그 사명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보다 크고 엄청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비참한 통곡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붙들고 같이 몸부림치면서 통곡할 수 있는 자리를 갖추지 않으면 아담이 하나님께 박은 한의 뜻을 아담과 더불어 뺄 수 없는 것이요, 아벨이 뜻을 박았으면 그 아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그 뜻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복귀가 원칙이라 할진대는 아벨의 입장에 서서 가인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같이 눈물 흘리지 않으면 복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 아벨이 가야 할 복귀의 길입니다.

노아가 실패한 것을 해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아 대신 하늘의 전체적인 책임을 진 아벨의 입장이 되어 실수한 노아를 가인적 자리에 세워 놓고 그를 붙들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소연 할 수 있는 한때를 갖지 않고는 노아의 슬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한 함을 붙들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한 때를 중심삼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한 길을 모색하지 않고는 탕감복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면 모세가 실패한 것을 중심삼고 아벨적인 입장에서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복귀의 사연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세레 요한이면 세레 요한, 예수면 예수가 실패했던 내용을 중심삼고 그들 대신자 입장에 서서 그들을 붙들고 통곡하며 하늘의 사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들이 나오지 않고는 지금까지 하나님 가슴속에 못 박혀 있던 서글픔을 뽑아 드릴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단의 희생한 무리들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회개하여 그 사연을 통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지 않고는 기독교를 복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오셔야 할 분이 재림주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담과 더불어, 아벨과 더불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더불어, 나아가 예수와 더불어, 또한 지금까지 복귀섭리의 역사과정에 왔다가 희생한 수많은 순교의 역사와 더불어 눈물 흘리게 될 때, 그 눈물은 타락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희망의 눈물로써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붙들고 대신 울어 줄 수 있는 아들이 되지 않고는 복귀의 사연은 결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더듬어 온 것이 지금까지 통일교회가 있게 된 배후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한때를 잃어버렸던 것을 탕감하기 위해 걸어간 예수님의 일생은 수난의 길이었습니다. 역사의 전체적인 한때를 몽땅 대신할 수 있는 생애를 살아야 했던 것이 오신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볼 때, 이러한 사명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실수하였던 하늘땅의 모든 사연을 엮어매어 해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과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종교 전체를 대신하여 판가리를 지어 가지고 승리의 결정권을 갖고 와야만 지상에 현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망이 지상에 현현하는 것이 아담의 실체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제 3 아담은 하나님의 내성적인 슬픈 천운을 품고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 두 세계의 마음을 몽땅 가져서 그 중 서글픈 마음을 뽑아 버리고 기쁜 마음을 재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내성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바라보시던 한스러운 지금까지의 역사를 전부 잊으시고 다시 아담을 창조할 수 있는 소망의 한때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천국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두 세계, 즉 슬픈 세계와 소망의 세계의 사명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30억의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오시는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그 분과 같은 운명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오시는 주님은 역대의 영계에 있는 수많은 영인들과 땅의 인연을 모두 갖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물로써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승리의 조건을 갖추고 오시고, 천상의 인연이 아닌 지상의 인연을 갖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이상 슬퍼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 몽땅 재림할 수 있는 곳은 그분이 계시는 지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내성적인 뜻을 몽땅 성취할 곳도 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슬픔과 기쁨의 두 세계에 있어서 사명을 다해야 되고, 영계와의 싸움에 있어서 지금까지 역사를 대신할 수 없었던 입장에서 이제는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현실과의 싸움에서 망하지 않

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시는 주님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볼 때, 복귀의 노정을 담당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 통일교회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스승에게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29-307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섭리적으로 어떤 때인가

여러분이 나를 선생님이로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도 그럴 것이고, 노아도 모세도 예수도 그럴 것이며, 지금까지 왔다 간 역대의 수많은 선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선생님을 따르다가 떨어지면 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로 인해 선조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영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생님과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과 인연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인 싸움을 전개해 온 것이 1960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싸움을 해온 것이 1970년도까지입니다. 즉, 제1차 7년노정이 끝나는 시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을 중심삼고 여러분을 내세워 종족과 민족적인 싸움을 하는 때요, 예수가 유대교로부터 배척받은 기준을 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가인과 아벨이 넘지 못했던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가 197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는 통일교회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들어서는 데에는 어떻게 들어서느냐? 어떤 환경도 개의치 않는 골짜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 그런 입장의 통일교회가 있다고 할 때는 한국의 운세는 세계적인 골짜기로 들이몰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끝날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죽을 수도 있는 때요, 살 수도 있는 때입니다. 거기에서 갈라지면 죽는 것이요 하나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되지 못하여 역사적으로 비운을 남겼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싸워왔던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방에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홀로 개척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종교를 어떻게 규합하느냐 하는 문제, 혹은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한국 정부면 정부를 중심삼아 사상적인 면에서 어떻게 유의해야 하느냐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1960년대 말에서부터 1970년도 중순에 이르러 여러분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는 통일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정적인 기준에 있어서 요셉 가정이 책임 못한 원한을 탕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것은 요셉 가정의 사명을 상속받아 승리의 기점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가정이 유대교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으로 탕감하도록 오늘날 축복받은 가정들을 다시 내세우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수많은 민족 앞에 본이 되고, 수많은 교회 앞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 가정이 책임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가정들이 잘함으로써 탕감복귀하고, 요셉 종족이 책임하지 못하고 유대교가 책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교단적으로 탕감복귀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적 실패, 종족적 실패를 국가 기준을 중심삼고 일시에 탕감복귀해 가지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겨울 여러분 가정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 못했기 때문이냐? 마리아가 책임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적 관점에서 이런 한때를 통일교회의 역사에 남겼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생님에게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귀추에 있어서 탕감원칙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작전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어떠한 때냐? 예수님 앞에 요셉 가정이 하나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때요, 세레 요한을 중심삼은 기반을 갖춘 때요, 기성교회와 하나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때요, 자연적인 입장에 선 때입니다. 그때가 되어야만 민족복귀가 가능한 시대권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유대교단을 품고 민족을 향하여 넘어갈 수 있고, 승리의 나라, 승리의 세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시대권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리적 관점에서 그러한 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최후의 한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국가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통일되어 합해지면 사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철옹성같이 항상 둘러싸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닉슨 독트린을 중심삼고 자주적인 권한을 갖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섭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편대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도 자연적으로 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것은 공산당을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귀원칙으로 볼 때, 일본은 해와의 입장입니다. 해와는 타락할 때 천사장을 끌어들이고 아담을 끌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를 중심삼고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관성 전도인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복귀해야 하느냐? 아담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국이 국가적 기준을 중심삼고 세계를 목표로 하여 탕감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본의 각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생님이 직접 일본 전역을 50개 지구로 재편성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전에는 천사장이 끌어들이었지만 여기에 있어서 하나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가 천사장인 공산당을 극복하여 새로운 깃발을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한때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슬픔이 무엇이고 역사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선조들이 품었던 소원이 무엇이겠는가? 자신을 중심삼고 국가를 대하고 세계를 대해서 탕감할 수 있는 한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탕감할 수 있는 그 한때를 맞이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하고, 여러분 개인은 선생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인 아벨 탕감복귀는 실제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개인은 가인 입장에서 선생님을 중심삼고 실제복귀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은 선생님 가정을 중심삼고 실제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가정은 반드시 중심가정인 아벨 가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최후의 한때는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천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탕감역사노정을 회고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한을 품은 비참한 민족이 되지 않았더냐? 그 후손은 창끝에 찔리고 말발굽에 밟혀 쓰러지지 않았더냐?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더냐? 이러한 역사적인 실패자들의 경우를 볼 때, 여러분은 일신의 평화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살려 하고 일신의 향락을 구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볼 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난 못 되면 망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를 담당한 책임자는 하나님과 하나되어 복귀섭리를 담당한 절대적인 입장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반대하고 어느 누가 반대하더라도 절대적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도입니다.

명령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길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16) " 라는 시시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뭐예요? 내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인 것입니다.

자식을 죽을 자리에 내세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을 자리에 내세우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몇 천 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경지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3년간 활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점에 놓여 있는 이 최후의 한때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심정을 가져야 되고 절대적인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타락이 무엇이나?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절대적인 실체가 되지 못하고, 절대적인 심정을 갖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녹음 불량으로 약간의 말씀을 심지 못했음)

지금 때는 우리의 때

제 1차 축복이 넘어가고 제 2차 축복 때부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반대한 무리들도 전부다 우리의 모모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들추어 가면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선생님은 결혼 전까지 탕감해 왔습니다. 그때에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일교회 문선생을 잡아먹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고비가 1960년도였습니다.

축복 당시에 처녀 총각들, 남의 아들딸을 데려다가 부모도 모르게 다 짝을 지어 놓고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들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마시오' 했으니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욕먹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내 딸이 결혼하는데 누가 흰옷을 입고 오라 마라 하느냐. 내가 누군데'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자기 딸 결혼식에 참석도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를 생각하니 별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부탁해 예복을 빌려 입고 들어와서 보니, 젊은 사람들이 모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수 있습니까? 이런 싸움은 빼앗기 싸움입니다. 아들딸을 빼앗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선생님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는지 전부다 압니다. 그가 들어와서 보니 자기 딸이 그 가운데 틀림없이 서 있거든. 그리고 그 딸이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분한 마음이 들었는지 미친 사람처럼 욕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욕은 하지 못하고.... 선생님은 다 압니다. 이제는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다 했으니 자기 딸을 데려가겠으면 데려가고 말겠으면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뜻은 어차피 세워질 것입니다.

이 반대는 72가정, 124가정을 축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30가정을 축복하고, 나니 합동결혼식이 좋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부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인들이 전도를 갔다 오니 자기의 아들딸을 말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미 뒤엎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중심삼고 안팎으로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숫자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기독교와 일반 종교까지 뭉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국가도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세계로 갈 수 있게 하고, 종교도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안팎으로 영계와 육계의 싸움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갇출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기성교회와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정세가 자꾸만 우리의 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을 내세워 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세계반공대회를 갖는 것도 공산당을 복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만 하늘의 섭리는 모두가 법도적인 것입니다. (이하의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음)*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